

1. 사랑의 하나님이 지옥을 만들고 우리를 심판한다는 것이 너무 모순적이지 않나요?

마태복음 25:31-46에서 예수님은 양과 염소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재림하여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양과 염소처럼 나누시며 양(의인)은 오른쪽에 두시고, 염소(악인)은 왼쪽에 두신다는 비유의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의 마지막 심판과 종말의 내용을 비유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요약하면 간단한 내용이지만 어렵습니다. 우리를 헛갈리고 궁금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심판의 기준을 가지고 양과 염소를 구분합니다. 이 심판의 결과를 듣고 양과 염소 둘 다 깜짝 놀랍니다. 양과 염소 둘 다 예수님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의외의 설명에 다들 질문합니다. 양이 질문하죠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나요?" 염소도 질문합니다 "우리가 언제 그렇게 안 했나요?" 이 두 질문에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고,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라고 대답하십니다. 진짜로? 진짜로 이게 심판의 기준이라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sola fide)는 확고한 교리를 배우며 자랐는데, 이 비유는 구원의 기준이 '작은 자에게 한 일', 마치 '행위로 구원받는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것과는 완전 다른데? 믿음이 아니라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인가? "구원=오직 믿음" 이 공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주고, 낯선 자에게 따뜻한 환대를 하고, 헐벗은 자를 입히고 아픈 자를 돌보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 보다 앞선다고? 수 많은 궁금증과 의문이 스쳐지나 갑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 구원은 오직 믿음이라는 것을 부정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변하지 않는 진리죠. 이 비유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는 반드시 선한 행위로, 사랑으로 그 구원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을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이 열매가 심판의 기준이 되는 것은 그 열매(행위)를 통해 그 믿음의 진정성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두 번 째로 궁금한 것은 “영벌”과 “영생”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영벌”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사실 이것 이해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게 사실이고 역사적으로 수 많은 연구와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 중 몇가지를 소개하자면,

전통적 견해 :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결과이며, 죄에 대한 정당한 대가로 의식이 있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

소멸설 : 영원한 생명은 오직 믿는 자만의 특권이고, 죄인은 형벌 후 존재 자체가 완전히 소멸

보편구원론 : 지옥은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일시적인 징계 또는 회복의 수단

비판적 회의론 : 성경은 완전히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신뢰하며 확신하지 않음, 지옥의 실체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취하며, 하나님의 자비에 희망을 둠

어떻게 젤루 맘에 드시나요?(^^) 머리 쥐어짜며 이런 이론들을 연구한 신학자들께는 미안하지만 봐도 봐도 이해가 잘 안 갑니다. 사실 이 이론을 주장한 학자들도 다른 의견들을 이해하려고도 이해하고 싶지도 않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신학자들도 이런데 우리는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다고 성경이 명확히 이야길 해 주면 좋을 텐데 그렇지도 않구요. 그런데 사실 성경이 명확히 이야길 해 주지 않은 거에 힌트가 있는데요 성경은 대신 우리에게 명확히 이야기 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우리를 그분의 심판의 잣대위에 놓고 기준에 미달하면 영벌에 처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복음을 우리에게 전달하셔서 우리를 하나님과 더불어 구원의 기쁨 안에 살도록 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이 세상이든 이 세상을 떠난 다른 세상이든 상관없습니다. 성경은 이 복음을 수 없이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 우리 삶에서 스스로에게 질문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인가, 아니면 사랑 없는 신앙인가?”

2. 나눔

- 위 글을 읽고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면 서로 나누어 주세요.

→ _____

- 지금 내 삶에서 예수님이 보신다면 어떤 모습으로 나를 기억하실까요?

→ _____

-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그러나 참된 믿음에는 반드시 열매가 따른다"는 메시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_____

- 혹시 하나님 앞에서 '행위'와 '믿음' 사이에서 혼란을 느낀 적이 있다면 어떤 경험이었나요?

→ _____

- 예수님이 말씀하신 심판의 기준은 "작은 자에게 한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서 '작은 자'는 누구입니까? 지금 내 주변에 돌봄과 환대를 필요로 하는 '작은 자'는 누구일까요?

→ _____

- "영벌"과 "영생"에 대한 다양한 견해가 있습니다(전통적 견해, 소멸설, 보편구원론, 회의론 등). 나는 어떤 관점이 가장 마음에 와닿나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지옥이라는 개념보다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이 "사랑 없는 신앙"일 수 있다는 말에 동의하시나요?

→ _____

-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유는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해 구원의 기쁨 안에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내 신앙에서 기쁨을 빼앗아 가는 요소는 무엇이고, 그 기쁨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 _____

- "내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옥인가, 아니면 사랑 없는 신앙인가?" 나는 이 질문에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을까요?

→ _____

3. 함께 드리는 기도

사랑의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 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봅니다.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지만, 그 믿음이 참되다면 반드시 사랑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가 작은 자를 돌보는 일에 게으르지 않게 하시고, 사랑 없는 신앙에 머물지 않게 하소서. 굶주린 자에게 떡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낯선 자를 환대하고, 아픈 자와 갇힌 자를 찾아가는 그 작은 행동 속에서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영별'과 '영생'의 깊은 비밀은 다 알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주님이 우리를 두려움으로 몰아가려는 분이 아니라 구원의 기쁨으로 초대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복음을 붙들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를 양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지막 날에 주님 품에 서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